

朝鮮初 濟州 <三姓神話>의 문자화 양상과 그 의미

정진희*

<차례>

1. 머리말
2. 이본의 실제
3. 小異의 실상과 그 특징
4. 제주의 주변부화와 신화의 재진술
5. 맺음말

<국문요약>

<삼성신화>는 이본별 차이가 별로 없다는 기존 논의와는 달리 조선 초에 문자화된 『세종실록』 및 『고려사』의 「지리지」, 정이오의 「성주고씨전」, 고득중의 「서세문」의 <삼성신화>는 주목할 만한 차이를 드러낸다. 건국 화소의 유무, 신화적 신이성이 투영되는 정도, 신화적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전환하여 이해하려는 경향, 姓氏에 대한 입장 등에서 세 이본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현상의 편차와 그에 따른 신화적 의미의 차이는 각 이본을 문자화한 기록자의 의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 이본을 특징짓는 그러한 ‘의도’는 조선 초기에 진행된 제주의 정치적 ‘주변부화’와 관련하여 기록자들이 처해 있던 위치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이 확인된다.

조선초 <삼성신화>의 문자화는 신화 전승의 토대가 되는 집단이 권력에서 소외되어 주변부로 내몰리는 역사적 조건 하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신화라는 담론 형식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잘 보여

* 세종대학교 강사

준다. 주변부의 신화는 권력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중심부의 담론으로 재편·공식화되며, 다른 한편 주변부에서는 권력을 상실한 주변부 지배층의 정치적 위치를 보증하려는 내부적 담론으로 재편되기도 하는 것이다.

주제어 : 삼성신화, 제주 고씨, 건국신화, 시조신화, 주변부화, 기록, 문자화, 의도

1. 머리말

<삼성신화>는 현재 제주시에 위치한 三姓穴 유적과 관련된 세 神人에 관한 신화이다. 구비 전승의 예도 없지는 않으나¹⁾ 일반적으로 <삼성신화>라 하면 ‘한라산 기슭 땅 속 구멍에서 솟아난 고을나와 양을나, 부을나가 곡식 종자와 송아지, 망아지를 가지고 바다 너머에서 도래해 온 세 여인과 각각 짝을 짓고分居하였다’는 내용이 중심이 되는 문헌 기록을 가리킨다.

<삼성신화>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신화적 화소에 대한 분석,²⁾ 그 신화적 성격에 대한 논의,³⁾ 제주도 신화의 통시적 전개 속에서 그것이 차

- 1) 강정식, 「三姓神話의 傳承樣相」, 『제주문화연구』(제주문화 1993), 155~185면 문무병,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백록어문』 7(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1990), 7~35면 등에 구비 전승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 2)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45~93면 허남춘, 「삼성신화의 신화학적 고찰」, 『탐라문화』 14(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139~149면 등 참조
- 3) <삼성신화>가 성씨 시조 신화인가, 아니면 건국 신화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논란거리였다. 한국 신화를 소개하는 개설서에도 <삼성신화>는 성씨 시조 신화나 건국 신화, 아니면 이 두 가지 성격을 둘 다 가진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일조각, 1971), 34~45면 서대석 『한국의 신화』(집문당 1997), 49면 홍기문, 『조선신화연구-조선사료고증』(지양사, 1989;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118~120면 등 참조

지하는 위치 등에 주목하여 이루어져 왔다.⁴⁾ 특히 제주도 신화의 사적 전개와 관련하여 <삼성 신화>를 보는 관점은 최근의 연구 경향에서 두드러진다. 현전하는 <삼성 신화>를 통해 탐라국의 건국 신화 혹은 건국 서사시의 존재를 확인하고 당본풀이와의 관련 양상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재구성하려는 시도,⁵⁾ 현전하는 <삼성신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변천 과정에 대한 추론⁶⁾ 등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최근의 연구 성과들은 <삼성신화>가 다양한 이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소 무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본들의 기록 배경이나 화소의 차이, 그에 따른 신화적 의미의 편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현전하는 <삼을나전승>’, ‘현전하는 <삼성신화>’라 하여 뭉뚱그려 지칭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현전하는 <삼을나전승>’, ‘현전하는 <삼성신화>’란 도대체 어떤 이본의 텍스트를 가리키는가? ‘이본의 내용이 대동소이하여 별 차이가 없다’는 판단⁷⁾이 이본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의 원인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미 지적된 바 있는 <삼성신화> 이본들에서 나타나는 화소의 차이⁸⁾가 과연 ‘大同小異’라는 이름

4) <삼성신화>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논의라 할 수 있는 장주근, 「삼성신화 해석의 한 시도」, 『국어국문학』 22(국어국문학회, 1960)는 무가의 발생과 전개, 그것의 유교적 윤색에 의한 문헌 정착 차원에서 <삼성신화>를 다룬 바 있다.

5) 조동일, 「탐라국 건국서사시를 찾아서」, 『제주도연구』 19(제주학회 2001), 71~108면.

6) 박중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태학사, 1999), 301~338 면에서는 탐라국 건국 서사시였던 <삼성서사시>가 탐라국이 고려의 일부가 되어 멸망하면서 그 서두만 남아 재편과정을 거친 것이 현전하는 <삼을나전승>, 즉 본고에서 말하는 <삼성신화>로 남았다고 본다. 강정식, 「제주도 당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95~223면에서는 본래 조상신본풀이였던 것이 세 성씨 집단이 함께 전승하는 당본풀이로 바뀌었고, 탐라 건국에 때 맞춰 ‘탐라개국신화’화 되었다가 후대에 탐라국의 위상격하와 족보화의 영향으로 시조 신화 수준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온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7) 현용준, 위의 글, 3면; 허춘, 「‘삼성신화’ 연구」, 『탐라문화』 14(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191면 등.

8) 각주 2) 참조.

으로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한가? 더구나 신화의 문자화에는 필연적으로 기록자의 '의도'에 따라 신화적 의미를 특정한 것으로 고착화하는 '재편'이 수반된다는 신화 일반론을 염두에 둔다면, 기록자의 위치와 기록 배경이 상이한 <삼성신화> 이본들의 차이는 각 이본들이 드러내는 신화적 의미 지향과 관련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논란거리로 남아있는 <삼성신화>의 신화적 성격 규정이나 통시적 변천 양상의 재구 역시 이러한 고찰이 기초되어야 비로소 논의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에, <삼성신화>의 이본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특히 조선 초기에 기록된 <삼성신화> 이본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이 시기에는 후대에 기록된 <삼성신화>의 많은 이본들이 답습한 『고려사』 「지리지」의 <삼성신화>가 문자화되었고, 「성주고씨전」, 「서세문」 등에도 <삼성신화>가 문자화되었다. 여기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출현한 세 이본을 비교·검토하여 각 이본의 특징을 살펴보고, '朝鮮初'라는 특정 시기의 역사적 정황과 그러한 정황 하에서의 기록자의 위치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이본의 특징이 기록자의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고찰하기로 한다. 이본의 특징적 면모가 어떤 신화적 의미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읽어내기 위함이다.

2. 이본의 실제

<삼성신화>의 이본을 검토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瀛洲誌'라는 텍스트이다. '영주지'는 <삼성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도 하고,⁹⁾ 족보류의 문서에 불과하여 객관적 자

9) 鳥月憲三郎, 『古代朝鮮と倭族』(東京: 中公新書, 1992), 67면

료로는 결함이 있는 텍스트로 평가되기도 한다.¹⁰⁾ 그러나 그 ‘영주지’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서지 사항조차 명확히 정리된 바 없다. ‘영주지’는 단행본이 아니라, 세종 32년(1450)에 고득중이 지은 『서세문』과 기타 고씨세보에 접철되고 있¹¹⁾다는 지적¹¹⁾이 있으나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인지 명확하지 않고, ‘영주지’의 이본에 대해 가장 상세히 언급한 논의¹²⁾에서조차 단행본 『영주지』와 단행본의 기사로 실린 『영주지』를 구분하지 않아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삼성신화> 이본으로서의 ‘영주지’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문헌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필사본 『영주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장흥고씨족보』,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고씨족보』이다. 문헌별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

①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영주지』

이 책은 고씨 족보의 서문집 성격을 띠고 있는 11장 1책의 필사본이다. <삼성신화>는 이 책의 앞부분에 실린 『瀛洲誌』, 『星主高氏傳』, 『序世文』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 『영주지』에는 간기가 없어 기록 연대 및 기록자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성주고씨전』은 永樂 14년(1416)에 鄭以吾가 『서세문』은 景泰 元年(1450) 高得宗이 기록했음이 간기를 통해 파악된다.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장흥고씨족보』

족보의 序跋류와 인물의 행장 등이 수록된 제1권의 열 번째 기사로 『瀛洲誌』(17a~21b)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 <삼성신화>가 전한다. 간기에 따르면 이 글은 景泰 元年(1450) 高得宗이 쓴 것으로 되어 있다. 간기 및 내

10) 전경수, 「을나신화의 문화전통과 탈전통」, 『탐라문화』 14(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4), 125면

11) 현용준, 앞의 글, 49면

12) 박원실, 「탐라국의 형성·발전과정 연구」(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용을 검토할 때, 이 글은 비록 제목은 「영주지」로 되어 있으나 다른 문헌에서 「서세문」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글과 같은 것으로 본다.¹³⁾

③ 『고씨족보』

『高氏族譜卷之一行錄附』라는 제목 아래 「영주지」, 「성주고씨전」, 「서세문」이 나란히 실려 있다. <삼성신화>는 이 글 모두에 수록되어 있다. 「영주지」는 작자 및 기록 연대를 알 수 없고, 「성주고씨전」은 영락4년(1416) 정이오가, 「서세문」은 경태 원년(1450) 고득중이 기록한 것임을 간기를 통해 알 수 있다.

결국, 고씨 족보 계열에 속하는 이들 문헌에서는 모두 세 편의 <삼성신화> 이본이 확인된다. 「영주지」¹⁴⁾와 「성주고씨전」,¹⁵⁾ 「서세문」이 그것이다. 「영주지」는 기록 연대와 기록자가 미상이긴 하지만 고씨 족보류의 문헌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고씨 가문 전래의 기록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기록 연대를 확인할 수 없는 「영주지」를 제외한 「성주고씨전」과 「서세문」은 모두 조선 초기에 기록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편찬된 관찬 지리지에도 <삼성신화>가 기록된다. 선행 연구에서 주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

13) 『장흥고씨족보』의 「영주지」는 다른 문헌의 「서세문」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다. 세 신인이 솟아난 구멍인 ‘毛興穴’을 ‘慕興穴’로 쓰거나 제주에 건국된 국가명을 ‘毛牟’가 아닌 ‘毛牟’로 쓰고, 지중용출의 서차가 양-고-부로 나타나며, 「서세문」의 계보에 나타나있지 않은 부분이 좀더 자세하다는 것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보아 「서세문」과 같은 글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판단이다.

14) 『영주지』와 『고씨족보』에 각각 실려있는 「영주지」는 서로 같은 글이다. 다만 『고씨족보』의 「영주지」에는 세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5) 「성주고씨전」은 『동문선』에 수록된 정이오의 「성주고씨가전」과 같은 글이다. 「성주고씨전」이 고씨 족보류의 문헌에 올라 있는 것은 그것이 원래 고씨 족보의 서문으로 지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성주고씨전」의 집필은 고득중이 자기 가문의 옛 사적을 글로 남겨줄 것을 정이오에게 청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있던 『고려사』 「지리지」의 기록이 그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도 <삼성신화>가 실려 있지만, 『고려사』 「지리지」를 인용하고 있어 결국 같은 것이다. 한편 『고려사』 「지리지」의 <삼성신화>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인용한 것인지, 공통 저본을 똑같이 인용한 것인지 상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두 글을 같은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 조선 초기에 기록된 <삼성신화> 이본으로 본고에서 다루어야 할 논의 대상은 「성주고씨전」과 「서세문」, 그리고 관찬 「지리지」의 세 편으로 정리된다. 고씨 족보류에 실린 글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기록 정황에 대해 알 수 없는 「영주지」는 경우에 따라 참고적으로만 살피기로 한다.

3. 小異의 실상과 그 특징

① 건국 화소의 유무와 그 양상

건국 화소의 유무는 신화의 건국 신화적 자질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삼성신화>는 이본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각 이본에서 <삼성신화>가 어떤 결말을 보이고 있는지 보자.

(지)¹⁶ 비로소 오곡을 심고 駒犢을 기르니 날로 부유해졌다.¹⁷⁾

(성) 몇 년 사이에 산업이 모두 이루어졌다

(서) 이때부터 비로소 산업이 이루어져서 오곡을 심고 駒犢을 기르니 날로 부유해져서 드디어 人境을 이루었다. 구백 년 후, 세 신인이 각자 돌을 던져 용력을 시험하니 高氏가 위, 良氏가 가운데, 夫氏가 아래였다. 그

16) 이하 (지)는 「지리지」를, (성)과 (서)는 각각 「성주고씨전」과 「서세문」을 뜻한다

17) 이하 인용은 번역문만을 제시하되, 필요에 따라 각주에서 원문을 밝히도록 한다

래서 민심이 모두 고씨에게 돌아가 高가 임금이, 良이 신하가, 夫가 백성이 되었다. 국호를 毛牟라 했는데 그 牟穀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세 이본 모두 ‘오곡을 심고 駒犢을 기르’는 등의 ‘산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런데 「서세문」은 왕의 등극과 ‘毛牟’라는 국가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결말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두 이본과 구분된다. 건국 화소의 유무만으로 건국 신화인가 아닌가를 따진다면, 「서세문」의 <삼성신화>는 건국신화로 볼 수 있으나 「지리지」와 「성주고씨전」의 <삼성신화>는 건국신화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서세문」에 건국 화소가 덧붙여져 있다’고 설명할 것인가, 「지리지」와 「성주고씨전」에 건국 화소가 탈락되어 있다’고 할 것인가?¹⁸⁾ 미약하지만 중요한 판단의 근거를 세 신화가 도래하게 된 경위를 서술하는 다음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지) ... 우리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서해의 中嶽에 神子 三人이 내려와 장차 나라를 열려고 하나 배필이 없다 하시고 ... 배우자를 맞아 대업을 이루소서.

(성) ... 남해에 있는 산이 神人 삼형제를 낳아 장차 나라를 세우려 하나 배우가 없으니, 너희들이 가서 섬기면 후세에 자손들이 반드시 번성할 것이다.

(서) ... 세 사람이 용출했는데 장차 나라를 열려고 하나 배필이 없다. ... 원컨대 부부의 예를 올려 대업을 이루소서.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할 때, 세 이본 모두에서 세 신인의 출현과 세 공주

18) <삼성신화>의 신화적 성격을 규정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전자로 판단된다면 <삼성신화>는 본질적으로 건국신화는 아니나 「서세문」으로 문자화되면서 건국 신화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일 경우 <삼성신화>의 건국신화적 성격이 「지리지」와 「성주고씨전」으로 문자화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거세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 도래가 開國 혹은 建國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국 장면이 포함된 「서세문」은 물론이거니와 건국 장면이 없는 두 이본에서도 세 신인의 출현이 건국과 관련되어 있음이 제시된다는 것은, ‘건국’이 이 신화의 본질적 요소였음을 짐작케 한다. 「지리지」와 「성주고씨가전」이 건국 화소를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요컨대, 「서세문」은 ‘毛牟’라는 국가의 성립과 그 최초의 왕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과거 제주에 국가가 존재했음을 명확히 하는 반면, 「성주고씨전」과 「지리지」는 세 신인의 출현 및 혼인이 건국과 관련됨을 말하면서도 결말 부분에 이르러서는 농경과 목축이 번성하게 되었다고만 하여 건국 장면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성주고씨전」은 다른 두 이본에 보이는 ‘대업’이라는 표현 대신 ‘후세에 자손들이 반드시 번성할 것’이라는 표현을 써서, 앞서 제시한 ‘장차 나라를 세우려 하나(將建國)’의 의미가 더욱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국과 관련한 이본별 특징은 <삼성신화> 뒤에 이어지는 후손들의 신라 입조 기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지) … 읍호를 탐라로 내려주었는데 …

(성) … 읍호를 탐라로 내려주었는데 …

(서) … 국호를 탐라라 했는데… 신라에 조회할 때의 이름은 남화국이다

「서세문」에서는 신라에 입조한 이들이 대표하는 정치적 집단이 ‘탐라국’ 혹은 ‘남화국’이라는 ‘국가’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리지」와 「성주고씨전」에서 그 집단은 신라의 왕으로부터 ‘國號’ 아닌 ‘邑號’를 하사받는 정치 집단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邑號’라는 표현에서는 탐라가 신라의 일부라는 의미와 함께, 탐라가 국가 수준의 政體가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지리지」와 「성주고씨전」은 일관되게 제주에 존재한 ‘국가’를 지우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고려사』 「지리지」를 텍스트로 한 선행 연구에서 <삼성신화>를 건국 신화로 볼 수 없었던 것¹⁹⁾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② 신화적 神異의 합리화

<삼성신화> 이본들에 공통된 서사의 핵심은 ‘세 신인의 출현’, ‘세 공주의 도래와 혼인’, 혼인 이후의 ‘분거’에 있다. 그런데, 각 이본들에서 이들 서사가 구체화되는 양상이 또 조금씩 다르다.

먼저 세 신인이 지상에 처음 출현하는 장면을 보자.

(자) ... 세 신인이 땅에서 솟아나왔는데... 西海中嶽이 神子 三人을 내리니 ...

(성) ... 기이하고 수려한 한라라는 산이 ... 그 신령한 和氣를 내려 神人이 산 북쪽 모퉁이에 화생하니 ... 세 사람이 동시에 솟아나왔다 ... 西南海의 산이 신인 세 형제를 낳았으니 ...

(서) ... 홀연 세 신인이 땅 속에서 솟아나왔는데... 絶岳이 세 사람을 湧出시켰으니 ...

인용문에서 확인되다시피, 세 신인의 출현은 두 번 언급된다. 신인들이 땅에서 솟아나는 장면과, 세 공주의 시위하여 온 사자가 도래 연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그것이다. 두 번째 장면은 세 신인의 출현을 山, 즉 한라산과 관련지어 제시한다. 한라산이 세 신인을 내렸다가나 낳았다가나 용출시켰다는 표현은, 땅에서 솟아난 세 신인의 출현이 한라산의 영험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세 이본 모두 한라산의 영험으로 세 신인이 한라산록의 구멍에서 솟아나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²⁰⁾

19)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문학과지성사, 2003), 324~328면

20) 1915년에 쓴 것이 1918년에 간행된 金錫翼의 『耽羅紀年』은 尤庵 宋時烈을 인용

그런데, 「성주고씨전」은 특히 세 신인의 출현을 ‘和氣’의 움직임에 의한 ‘化生’으로 표현함으로써 다른 이본과 다른 특징적 면모를 드러낸다. 「성주고씨전」이 湧出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음의 언급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以吾가 들으니 伊尹은 空桑에서 降았고, 傳說은 傳巖에 내려왔다 하기에 일찍이 기상스럽게 여기고 이를 의심하였다. 그러다가 生民편 詩의 傳을 읽은즉 옛 학자가 이르기를, “천지가 시작될 때에는 본시 인간이 없었다 곧 인간은 조화에 의하여 생겨난 것으로 대개 천지의 기운이 이것을 낳게 하는 것이다.”하였다. 또한 특종의 선대의 사적이 이러한 것을 보고나서 신인의 출생이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²¹⁾

땅에서 솟아나왔다고 하는 ‘地中湧出’은 ‘生於空桑’이나 ‘降於傳巖’과 같은 층위의 현상이다. 기록자는 이러한 현상을 괴이하게 여겨 의심했으나, ‘先儒’의 글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하여 ‘세 신인이 탐라 한라산에 내려왔다(三神人降于耽羅之漢拏山)’이라 쓰고 있는데, 이는 연구자에 따라 세 신인이 ‘하늘에서’ 한라산으로 내려왔다는 천상강림형 화소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박종성, 위의 글 332~334면). 그러나 다른 이본들에서 ‘降’이 타동사로서 한라산이 세 신인을 ‘내렸다’고 해석되는 여러 용례를 상기할 때, 여기에서의 ‘降’을 ‘천상으로부터의 강림’으로 보는 것은 자칫 단순한 해석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 과문한 탓이었으나 김석익이 인용했다는 尤庵의 글의 원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바, 송우암 시절에 이러한 전승이 있었음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우암 송시열과 비슷한 시기의 인물의 글로 寓庵 南九嘯(1661~1719)의 <毛興穴古事>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세 신인의 출현은 지중용출로 표현되어 있었다. 김석익의 인용에서 ‘降’을 ‘천강’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록은 근대 이전의 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바, 이를 근거로 천상강림의 탄강형 신화소가 지중용출 신화소와 별개로 존재했다고 추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21) 번역문은 『(1982년 수정증판)국역 동문선』(민족문화추진회, 1969), 112면을 따랐다. “以吾聞伊尹生於空桑, 傳說降於傳巖, 嘗怪而疑之, 及讀生民詩傳, 先儒曰天地之始, 固未嘗先有人也, 則人固有化而生者矣, 蓋天地之氣生之也, 又觀得宗先世如此而後, 有以知神人之生, 異於人也.”

‘得宗先世’, 즉 고득중 일가의 시조를 ‘신인’으로 표현하는 한편 그 신인의 ‘지중용출’에 ‘신령화기의 화생’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주고씨전」에서 신화적 신이성은 이러한 합리화 과정을 거쳐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신화에 나타나는 신이한 요소를 합리적 시각으로 굴절시켜 기술하는 「성주고씨전」의 경향은 세 공주의 도래 장면에서도 보인다. 다른 세 이본에서 세 공주는 木函 안에 담긴 석함(또는 옥함) 속에 담겨 표착한 것으로 표현되지만, 「성주고씨전」은 “...乘之以全木船...”이라 하여 배를 타고 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석함이나 옥함은 물에 뜰 수 없어 황당하니, 물에 뜰 수 있는 ‘목선’으로 표현한 것이다.²²⁾

신화적 신이성에 대한 「성주고씨전」의 이러한 태도는 신화적 화소가 탈각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세 신인과 세 공주의 분거 장면을 보자

(지) ... 세 사람은 歲次에 따라 각각 나누어 혼인하고 샘이 달고 땅이 비옥한 곳에 나아가 활을 쏘아 살 곳을 정했다. ...²³⁾

(성) ... 세 사람은 각각 나누어 혼인하고 모흥굴 근처에 터를 잡고 살았다. ...²⁴⁾

(서) ... 세 사람은 이에 정결한 희생물로 하늘에 고하고, 年次에 따라 나누어 혼인하였다. 샘이 달고 땅이 비옥한 곳에 나아가 활을 쏘아 살 곳을 정했다. ...²⁵⁾

「지리지」와 「서세문」에서 分居는 이른바 ‘射矢卜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습은 구비전승되는 제주도의 당신본풀이에서도 발견되는 화소로,²⁶⁾ 흔히 좌정처를 정하기 위한 활쏘기 혹은 ‘뽕개 던지기’로 나타난

22) 이와 유사한 지적이 강정식, 위의 글, 223면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23) ... 三人以歲次分取之婚姻,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

24) ... 三子分娶之, 卜毛興窟近地以居 ...

25) ... 三人即以潔牲告天, 以年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

26)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 광정당 본풀이, 상창 하르방당 본풀이 등을 예로 들 수 있

다. 그런데 「성주고씨전」에는 다만 모흥굴 근처에 터를 잡아 살았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제주도 신화에서 보편적인 신화적 화소²⁷⁾가 없는 「성주고씨전」의 <삼성신화>는 신화로서의 면모가 약화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신화적 신이성과 관련하여 「서세문」에도 주목할 만한 요소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서세문」의 <삼성신화>에는 세 신인이 혼인에 앞서 ‘희생으로써 하늘에 고하였다’고 한 표현이 있다. 도래 여신과 토착 남신의 혼인은 제주도 신화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신화소인데, 「서세문」은 이를 ‘하늘’과 관련지어 서술함으로써 그 혼인의 위엄과 신성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신화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史實化 경향

신화 속의 사건을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이려는 입장은 신화를 과거의 ‘역사’와 결부시키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이나 사건을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史實’화한다. 신화 속의 사건을 역사적 사건이나 현재의 증거물과 관련지어 서술하는 것을 신화의 사실화 지표로 삼는다면, 위의 세 이본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표1>

	「지리지」	「성주고씨전」	「서세문」
삼신인 출현	지금 주산 북쪽 기슭에	‘한라’라는 기이하고	한라산 북쪽 기슭 광양

다. 현용준, 위의 글, 69~70면에 그 예가 자세하다.

27) <삼성신화>에서의 ‘사시복지’는 세 신이 각각 관장할 지역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인세차지 경쟁’ 화소로 볼 수 있다. ‘인세차지 경쟁’ 화소는 한국의 창세시조신화에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므로, 사시복지 화소가 지니는 신화적 면모는 제주라는 지역적 단위를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인세차지 경쟁 화소에 대한 것은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1980) 참조

장소	‘모홍’이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가 그(용출한) 곳이다	수려한 산이 있는데... 산 북쪽 모홍혈에(세신인이 화생하였다)	땅에 ‘모홍’이라는 品字 모양의 글에서 세신인이 땅에서부터 용출하였다
삼신인 출현 시기	없음	없음	세 사람의 출현은 바로 九韓 때에 해당한다
삼공주 표착지	동해 물가	동해 물가	동해에서 떠 오니... 끌어내어 金塘가에 두었다. 지금 조천관 아래 포구가 이것이다
분거지	第一都, 第二都, 第三都	모홍혈 근처	第一都: 한라산 북쪽 一徒里니 지금의 濟州이다. 第二都: 한라산 오른날개의 남쪽 山方里니 지금의 大靜이다. 第三都: 한라산 왼날개의 남쪽 土山里니 지금의 旌義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 세 신인의 출현 장소는 세 이본 모두 ‘모홍혈’이라는 구체적 장소가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리지」와 「서세문」은 ‘지금’이라는 시간 혹은 ‘광양’이라는 현재적 공간과 관련하여 그 장소를 제시함으로써 그곳이 현재 확인 가능함을 주지시킨다. ‘모홍혈’이 ‘현재’ 실재하는 공간이라는 배경지식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한라산 북쪽 기슭의 모홍혈’이라고만 표현된 「성주고씨가전」의 기술에서 ‘모홍혈’은 단지 신화 속에 구현된 신화적 공간에 그치고 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비하면, 「지리지」와 「서세문」은 신화의 문맥에서 ‘모홍혈’을 실제적인 것으로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사실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 있다.

신화의 공간을 현재의 실재 공간으로 표현하는 양상은 「서세문」에서 거듭 나타난다. 세 공주의 표착지를 ‘동해 물가’라고만 하는 「지리지」 및 「성주고씨전」에 비해 「서세문」은 ‘현재’의 ‘조천관 아래 포구’임을 제시하며, 혼인 후의 분거지 또한 ‘현재’의 ‘제주 일도리’, ‘대정 산방리’, ‘정의

토산리'라 하여 현재 확인가능한 공간과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

또 「서세문」의 사실화 경향은 신화적 공간을 현재의 공간과 결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신화적 시간을 역사의 시간으로 표현하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세문」은 다른 이본과 달리 세 신인의 용출 시기를 '九韓之時'로 단정한다. 이러한 서술에서 세 신인의 출현이라는 신화적 사건은 과거의 구체적 시간에 존재했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²⁸⁾

28) 박종성, 위의 책, 314~317면에서는 이 시기를 고구려 세력이 제주에 입도한 때로 보고, 삼을나의 출현 시기를 '九韓之時'로 표현한 것은 탐라 건국의 시조를 고구려에서 입도한 세력과 관련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九韓之時'라는 표현이 신화를 사실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 본고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신화의 서술을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키고 있다. 본고의 관심은 신화를 자료로 하여 '역사적 사건'을 재구하는 데 있지 않고, 텍스트로서의 신화가 발화 혹은 담론으로서 발휘하는 의미와 효과가 무엇인지 살피는 데 있다. 따라서 구한 때 고구려 세력이 제주도에 입도했는지, '구한지사'라는 표현이 역사적 사건을 엄두에 둔 것인지의 사실 여부는 본고의 관심 밖이다. 하지만 위의 책에서 일관되게 전제되고 있는 '고구려 세력의 1세기 경 제주도 입도설'은 매우 매력적인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고구려본기」의 기록을 통해 탐라가 가까운 백제를 두고도 고구려에 조공한 것은 탐라 지배 세력 가운데 고구려와 관련한 세력이 존재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의 탐라의 조공은 일종의 '교역' 행위로 이루어졌던바 고구려는 탐라의 다양한 교역 통로 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한편 그는 탐라 지배세력이 고구려계임을 방증하는 증거로 『신당서』 <동이열전> 탐라조에서 그들이 북부여 자손임을 말하는 장면을 들고 있는데, 예의 북부여 자손 운운은 '달말루'와 '달후'에 관한 것으로 흔히 탐라로 해석되는 '담라'에 관한 기록은 아니다. '달말루'와 '달후'조의 기록을 '담라'조의 기록으로 잘못 읽은 것이다. 또, 그는 <삼성신화>에 나오는 '을나'가 고구려 계통의 단어임을 주장하지만, 설령 어원적 기원이 그것에 닿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구려 세력의 제주 입도를 증거할 수는 없다. 『고려사』의 여러 기록에서 '을나'는 고려에 입공한 여러 이민족 인물의 명칭으로 종종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고구려인이 그 이민족들의 지배세력으로 유입된 결과인가? 또한 고창 형제가 을나의 15대손이라는 사실과 이 기록에 이어지는 백제 동성왕의 親征 연대를 조합하여 백제 동성왕으로부터 15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략 기원후 1세기가 되므로 을나 출현과 고구려계 입도 시기가 맞아떨어진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의 앞뒤를 살펴보면 백제 동성왕의 친

④ 姓氏에 관한 인식

<삼성신화>에 등장하는 세 신인의 序次 문제는 고씨와 양씨, 부씨의 우열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되어 왔다. 선행 연구도 이 문제를 주의깊게 다루고, 대부분의 이본이 세 신인의 序次를 고을나-양을나-부을나 순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지리지」 계열의 이본들은 양을나-고을나-부을나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주 양씨의 분파인 남원 양씨였던 梁誠之²⁹⁾가 「지리지」 계열 이본들의 선본이라 할 수 있는 『고려사』 「지리지」의 편수자 중 한 명이었기에 그가 자신의 조상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양을나를 앞세웠기 때문으로 추정해 왔다.³⁰⁾

세 을나를 구분하는 표지인 고·양·부는 본고에서 살피는 세 이본이 기록된 조선 초기에 이미 제주의 특정 친족 집단의 姓氏로 자리잡고 있었다.³¹⁾ 따라서 세 이본에서 고·양·부의 표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정은 15대손인 고후·고칭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동성왕 시기로부터 15대를 거슬러 올라가 삼을나의 출현 시기를 추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가 제시한 ‘고구려 세력의 1세기경 제주 입도설’의 근거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주 용담동에서 출토된 석곽묘 양식이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 지방에서 1~3세기에 축조된 적석묘 양식과 유사하다는 것에 국한된다 요컨대 ‘고구려 세력의 1세기경 제주 입도설’은 그것을 뒷받침할 충실한 근거가 부족한 추론이라 할 수 있다.

29) 訥齋 양성지의 본관은 南原인데, 남원 양씨는 제주 양씨의 분파이다

<http://people.aks.ac.kr/front/tcontents/tcontentsFrameSet.jsp?item=lst>.

30) 최근의 예로 조현설, 위의 책, 327면 참조 하지만 국가 주도의 편찬 사업에 개인의 사적 의도가 과연 어느 정도나 반영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재고를 요한다. 「지리지」에서 양을나의 서차가 앞서는 까닭에 대한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31)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고려 시대에는 고씨와 양씨 부씨 등이 탐라의 특정 친족 집단의 성씨로 굳어져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성을 알 수 있는 인물도 있지만 성과 이름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인명이 종종 보이기 때문이다. 같은 동아시아 문명권 내부에 존재했던 류큐국에서 지배 사족은 ‘와라비나’라는 전통적 이름 외에 대외 관계에 소용되는 중국식 이름과 일본식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고려 시대 탐라의 지배층도 이와 유사한 명명법을 운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고려 시대 탐라의 성씨 사용 실태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

를 살피는 것은 각 이본의 성씨에 관한 인식을 고찰하는 일이 된다.

(지) (가) ... 세 신인이 종지용출했는데 ... 長은 양을나 次는 고을나 三은 부을나이다. ...

(나) ... 세 사람은 歲次대로 分取하여 혼인하고 ... 射矢卜地하였는데 양을나가 산 곳은 제일도, 고을나가 산 곳은 제이도, 부을나가 산 곳은 제삼도라 한다. ...

(성) (가) ... 세 사람은 동시에 용출했는데, 고을나·양을나·부을나라 한다. 고을나는 곧 고씨 奧祖이다. ...

(나) ... 세 사람은 그를 分娶하고 모흥굴 근처에 卜居하였다 ...

(서) (가) ... 홀연 세 신인이 있어 종지용출하니 ... 長은 양을나 次는 고을나, 三은 부을나이다 ...

(나) ... 세 사람은 年次로써 그를 分娶하고 ... 射矢卜地하였는데 고을나가 산 곳은 제일도라 하고 ... 양을나가 산 곳은 제이도라 하고 ... 부을나가 산 곳은 제삼도라 한다. ...

(다) ... 구백 년 후 세 신인이 각자 돌을 던져 용력을 시험하니 高氏가 위, 良氏가 가운데, 夫氏가 아래였다. 그래서 민심이 모두 고씨에게 돌아가 高가 임금이, 良이 신하가, 夫가 백성이 되었다 국호를 毛牟라 했는데, 그 牟穀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

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신화>의 ‘고’와 ‘부’를 고구려와 부여의 성씨로 파악하고, 고려 때 탐라국 건국 서사시의 <삼을나 전승>(즉 <삼성신화>)으로의 재편이 ‘성씨’를 통해 탐라의 시조가 부여·고구려계에 族原을 두었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추론한 선행 연구(박중성, 위의 글, 320면)가 있다. 고려 시대 이전에 기록된 성씨 표지가 없는 <삼성신화> 텍스트와 고려 때 기록된 성씨 표지가 있는 <삼성신화> 텍스트가 동시에 확인되지 않는 한, 이러한 추론의 정합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본고의 관심은 <삼성신화>의 성씨 표지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출현했는가에 있지 않다. 본고는 다만 성씨가 굳어진 조선시대에 문자화된 신화에서, 성씨로 파악되는 고·양·부의 표지가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확인하려 한다.

세 신인의 용출 장면인 (가)가 선행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이른바 序次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하지만 「성주고씨전」에는 長-次-三의 서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³²⁾ 다만 세 을나 중 고을나가 ‘고씨의 奧祖’임이 확인되고 있다. 「성주고씨전」이 제목 그대로 고씨 일문에 서술의 초점을 맞추고 다른 성씨들의 위치나 고씨 일문과의 관계에 무관심한 경향은 (나)에서도 확인된다. 다른 두 이본은 ‘사시복지’라는 경쟁을 통해 일도와 이도, 삼도의 거주자가 정해졌다고 하여 세 을나의 순위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성주고씨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다)는 건국 화소의 일부로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데 「서세문」에만 있다. 세 성씨의 경쟁 과정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용력 시험의 결과 고씨와 양씨, 부씨 순으로 용력의 상·중·하가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세 을나는 각각 君과 臣, 民이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군과 신과 민의 상하 구분은 유교적 정치질서와 관련되는 위계 구분이다. 따라서 「서세문」의 이러한 진술은 양씨와 부씨가 고씨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에서 臣과 民의 위치를 차지했다고 함으로써 다른 성씨에 대한 고씨의 위계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씨가 왕이 되었다고 할 뿐 다른 성씨의 정치적 위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영주지」까지³³⁾ 고려한다면, 「서세문」은 다분히 다른 성씨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주고씨전」과 「서세문」 등 고씨 족보류 소전의 <삼성신화> 이본들은 각각 그 양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고씨 시조인 고을나에게 서술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파악된다. 그렇다면 양을나의 서차가 고을나에 앞서는 「지리지」에서는 양씨 시조인 양을나에게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져

32)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 순으로 서술되어 있어 이 차례를 서차로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이본에서 長·次·三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구별된다. 서차를 구분할 의식적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3) 「영주지」는 “厥後九百年之後，人心咸歸于高氏，以高爲君國號毛羅”라 하여 모라국 건국에서 다른 성씨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있을까? 위에서 제시한 성씨 관련 부분만을 놓고 보면 그러한 면모는 찾기 힘들다. 「성주고씨전」이 고을나를 ‘고씨 오조’라 하여 강조하는 것이나, 「서세문」이 고씨왕을 내세우며 고씨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삼성신화>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일관된다. 예컨대 탐라가 신라에 처음 조회한 일에 대한 서술을 보면, 다른 두 이본에서는 고씨의 15대손 3형제가 신라에 입조하여 각각 성주와 왕자, 도내의 이름을 하사받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리지」에서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도 신라에 입조한 3형제를 다만 ‘15대손’이라고만 하여 그 시조를 특정 성씨와 관련짓지 않고 있다. 한반도 국가와 처음 관계를 맺은 3형제가 양씨의 후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양을나를 서차의 맨 앞에 두는 「지리지」의 <삼성신화>를 良氏가 강조된 신화로 읽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지리지」의 <삼성신화>에서 양씨에 대한 경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지리지」의 <삼성신화>에는 세 을나를 구분하는 표지인 고, 양, 부가 성씨라는 명확한 기술이 없기조차 하다.³⁴⁾ 「지리지」는 양씨를 강조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씨 자체를 의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요약하자면, 「지리지」의 <삼성신화>는 성씨에 대한 의식이 다른 이본에 대해 매우 희박하며, 「성주고씨전」은 고을나가 고씨의 오조임을 강조할 뿐 다른 성씨에 대한 별다른 의식이 없고, 「서세문」은 다른 두 성씨에 대한 고씨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드러난 각 이본의 특징적 면모를 정리해 보자.

「성주고씨전」의 <삼성신화>는 ‘고씨 奧祖’에 관한 기록이다. 건국 화소가 없으니 ‘건국’ 신화라 말할 수 없고, 제주도의 다른 신화들과 공통되

34) 「성주고씨전」, 「서세문」은 ‘高氏’라는 표현을 통해 고, 양, 부가 성씨임을 명확히 하지만, 「지리지」는 그것이 성씨를 구분하는 표지로 확인하지 않는다

는 신화적 요소가 탈각되거나 신화적 신이성이 합리적으로 해석되고 있으니 ‘신화’로 정의되기도 곤란하다.³⁵⁾

「지리지」의 <삼성신화>는 건국 화소가 없어 건국 신화로 보기 어렵고, 신화적 사건들을 특정 성씨의 시조와 관련짓는 기술이 없어 성씨 기원 신화라 하기에도 곤란하다. 그러나, 「지리지」의 <삼성신화>는 제주 신화에 나타나는 신이적 요소가 대부분 굴절없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신화’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고 있으며, 세 신인이 출현한 신화적 공간을 현재의 공간과 결부시킴으로써 그러한 사건을 단순한 허구가 아닌 사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³⁶⁾ <삼성신화>를 ‘신화’로 기술은 하되, 그 신화의 주인공을 현존하는 특정 성씨나 정치 세력과 관련짓지 않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화의 결말이 농경과 목축의 번성으로 끝나는 것에서 제주의 문화기원 신화로 볼 여지가 있고, 이렇게 보면 신화의 초점은 세 을나만이 아니라 오곡 종자와 가축을 가지고 도래한 세 공주에게로 두루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서세문」의 <삼성신화>는 ‘건국’의 주역이었던 고씨 시조에 관한 신화이다. 다른 성씨에 대한 고씨의 우위를 강조하는 점, 성씨의 위계가 유교적 정치 질서에 조응된다는 점, 신화적 사건을 역사적 시간과 공간 위에서 사실화하는 점 등은 이 신화를 고을나를 건국주로 하는 건국 신화로 볼 수 있게 한다. 신라 건국주이면서 박씨 시조인 박혁거세 신화 등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35) 「성주고씨전」은 성씨시조신화로 보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성씨시조 신화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得姓’ 과정이 「성주고씨전」에는 없기 때문이다. 성씨시조신화의 특징에 대해서는 서해숙, 『한국 성씨의 기원과 신화』(민속원, 2005) 참조.

36) 그러나 「지리지」의 이러한 면모는 모흥혈의 위치 정도에 그치고 있어 「서세문」에 비하면 그 정도가 매우 약하다.

4. 제주의 주변부화와 신화의 재진술

4.1. 역사적 정황

신화의 문자화에는 기록자의 의도에 따른 변이가 일어난다는 일반론을 따를 때, 비슷한 시기에 문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핀 각 이본들이 제각각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은 문자화된 신화 뒤에 가려져 있는 기록자의 의도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삼성신화>의 이본을 검토하면서 살폈듯이 위의 이본들은 각기 관찬서나 개인 문집, 혹은 족보류에 실려 전한다. 관찬서인 「지리지」는 특정 개인의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적은 국가적 차원의 글이며, 「성주고씨전」은 비록 고씨 가문의 의뢰가 직접적 동기가 되기는 했으나 당대의 관료 문장가가, 「서세문」은 제주 고씨 가문의 한 사람이 썼다. 이들이 각각 서로 다른 <삼성신화>를 기록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이들이 관계하고 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

고려 원종 17년(1276) 元의 목마장이 설치되면서 제주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은 고려에서 元으로 이전되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변화가 있기는 했으나, 이러한 상황은 이후 약 백여 년에 걸쳐 지속된다. 원을 멸망시키고 그 뒤를 이은 명은 원의 목마장에서 나온 전투마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고려가 주장하는 제주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제주는 이미 元의 관리들과 목호들, 그리고 그에 협력한 제주 토호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장악되었던바, 명이 요구하는 전투마 징발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374년 공민왕이 최영을 보내 목호를 정벌토록 한 것은 제주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내외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명 태조가 원의 제후왕이었던 운남 양왕의 태자 伯伯太子와 그

자손을 제주로 귀양보낸 사실 등을 보면, 명이 제주의 고려 지배를 그대로 두고 볼 의도였던 것 같지는 않다. 고려를 이어 성립한 조선 왕조 역시 명의 이러한 의도를 감지하고 있었고,³⁷⁾ 조선은 원 지배의 영향으로 한반도 중앙 정부의 지배력이 감소한 제주에³⁸⁾ 대해 실질적 지배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의 토호 세력과 조선은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조선은 우선 토착 지배 세력을 이용하여 제주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해 나가려 했고, 토착 지배 세력은 조선 왕조에 적극 협력하고 편입됨으로써 그 권위에 기대어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³⁹⁾ 제주의 행정조직을 재편함과 동시에 토착 지배 세력을 土官으로 임명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자체를 중앙 정부에 전략적으로 등용한 것이나,⁴⁰⁾ 제주의 성주와 왕자가 그들 스스로 성주와 왕자의 호칭을 포기하고 조선 조정으로부터 좌도지관·우도지관의 직위를 받게 된 것⁴¹⁾은 그러한 의도들에서

37) 태종 6년 4월, 명의 사자 황엄이 제주의 銅佛를 가져오기를 원하자 조정에서는 실질적 목적이 제주 정탐에 있다고 보고 미리 사람을 보내어 불상을 가져오도록 한다. 제주를 둘러싼 명과 조선의 알력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다.

38) 최영의 목호의 난 토벌로 제주에 대한 한반도 중앙 정부의 지배력이 회복되었지만 그것이 실질적 지배로 연결된 것 같지 않다. 바로 이듬해 제주에서는 중앙에서 파견된 안무사와 목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의 진압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아닌 토착 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주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강력하지 않았고, 제주 내부의 권력이 존재했던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본다.

39) 이에 대해서는 김진영, 「조선초기 중앙정부의 '제주도' 정책」(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6~17면 참조 한편 이러한 정책은 고려 조에도 이미 행해진 바가 있었다. 제주도 토착 세력과 고려가 지배권력을 매개로 느슨한 동맹관계에 있었음이 지적되었다. 진영일, 「고려전기 탐라국 연구」, 『탐라문화』 16(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170~171면

40) 예컨대 성종대 梁誠之의 상소는 이러한 상황을 잘 요약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삼읍을 설치함에 미처서 그 권세를 나누고 그 자체를 등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진압시켰으니..."(『성종실록』 9년 10월 13일).

41)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태종 2년에 성주 고봉례와 왕자 문충세 등이 스스로 성주와 왕자의 호가 너무 참람한 것 같다고 하여 각각 좌도지관·우도지관으로 삼았다고 한다. 『태종실록』의 태종 4년 4월 21일 기사에는 제주 토관의 칭호를

비롯되었다.

「서세문」의 저자이자 정이오로 하여금 「성주고씨전」을 집필하도록 청탁한 고득중은 조선초 조정의 제주 토호 회유 정책으로 한양에 거주하게 된 제주 출신 在京官人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정이오가 「성주고씨전」을 고득중으로부터 부탁받은 것은 고득중이 출사한 2년 후인 태종 16년의 일이다. 『세종실록』 7년 11월 23일 기록에 ‘...득중이 급제한 후에 제주에 들어가서 좋은 말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와서 권귀들과 교제를 맺’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상경 이후 맺은 고득중의 교유 범위 안에 정이오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 왕조의 지방 행정 체제가 정비되면서 제주에서의 토호들의 역할은 점차 그 비중이 약화되기 시작한다. 조정의 원래 목적이 제주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완성하는 것이었고 토호에 대한 회유와 협력은 이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사태가 이렇게 전개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제주에 관한 정책에서 토호들의 발언권이 점차 그 권위를 잃어갔을 뿐 아니라, 오히려 토호들의 존재가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⁴²⁾

출사 초기 馬政이나 제주 관련 업무를 주로 관장했던 고득중이 조정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한 것은 세종 때였다. 조정에서 직접 파견된 목사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점차 제주 토호의 유용성이 무의미해짐에 따라⁴³⁾ 제주도 정책이나 馬政에서의 발언권도 그 영향력을 잃어갔지만,⁴⁴⁾ 고득중은

고쳐 성주로 도주관 좌도지관을, 왕자로 도주관 우도지관을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42) 羅州 教授官 陳遵은 제주에서 조세를 거둘 것을 주장하며 토호로 인해 官이 개입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비옥한 밭은 그 지방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경작함으로써 사사로이 나누어 갖는데, 세력이 강한 자가 겸병하고 사람을 시켜 경작하게 해서 자기에게 벼를 바치게 해 이익을 독차지하는데도 관에서는 참여하지 못합니다...”(『세종실록』 1년 7월 13일)

43) 김진영, 위의 글 19~27면

44) 세종 16년, 고득중은 私利를 위해 제주 목장에 築牆할 것을 목사 장우량에게 청

진상마를 관리하는 관압사로 중국에 다녀오기도 하고, 통신사나 성절사로써 일본과 중국에 보내어지는 등 일견 재경관인으로서 순탄한 관직 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실제 관직 생활은 탄핵과 해직, 복직의 연속이었다. 관직을 수행하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고, 일개 사절로서 분에 넘치는 행동을 일삼는다는 것이 탄핵의 주된 이유였다. 그런데, 고득종을 탄핵하는 글에는 그를 일컫는 특정한 단어가 관용구라 할 정도로 빈번하게 등장함이 주목된다.

가) 득종은 비록 海外의 사람이오나, 원래 어릴 때부터 서울에 와서 배웠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당상관에 이르렀는데, 나라의 법을 고의로 범하여 완악하게 탐하고서도 부끄러움이 없으니, 어찌 해외의 사람이라고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⁴⁵⁾

나) 고득종은 海島의 微生으로서 특별하게 상을 입사와 벼슬이 당상에 이르렀사오니, 마땅히 삼가서 법도를 지켜 성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것을 도모해야 할 것이운데, ...⁴⁶⁾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海外之人’, ‘海島微生’이라는 표현에 내포된 의미이다. 위의 예문에서 이 표현은 동정이나 배려의 대상이라는 표지이면서 동시에 ‘微生’의 축자적 의미에서 드러나듯 천시나 경멸 같은 부정적 가치를 내포한다. ‘어릴 때부터 서울에 와서 배웠고, 과거에 급제하여

탁, 결과적으로 馬匹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예조 참의에서 파직된다. 이후 고득종이 누명임을 주장하자 대사헌 등이 누우침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죄줄 것을 청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다음 해 예조 참의로 복직되었다. 제주도 馬政과 관련한 고득종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한편, 그 영향력이 상실되어 가는 국면이 잘 드러난다.

- 45) “得宗 雖海外之人, 元自髻稚, 來學京都, 捷科第位至堂上官, 故犯邦憲, 頑貪無恥, 豈可以海外之人寬假也?”(『세종실록』 21년 4월 21일)
- 46) “中樞院副使 高得宗 以海島微生, 特蒙上恩, 位至堂上, 宜當謹守法度 圖報聖恩之萬一”(『세종실록』 23년 7월 19일)

벼슬이 당상관에 이르러 중앙 관료제의 일부로 편입되었던 고득중이었지만, 그것은 ‘海外之人’이나 ‘海島微生’이라는 낙인이 새겨진 채였던 것이다. 고득중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제주 토호들에 대한 조선 왕조의 포섭 혹은 ‘동화’가 결국 ‘차별’을 내포한 ‘구별’이었음을 잘 말해 준다.⁴⁷⁾

조선이 제주를 실질적 지배 권역 안에 포섭하는 이러한 과정은 결국 제주와 제주의 토착적 지배 계층이 권력으로부터 소외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본고는 ‘주변부화’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4.2. 문자화의 의도와 신화의 의미

「지리지」, 「성주고씨전」, 「서세문」의 <삼성신화>는 조선초 제주가 조선의 변방으로 주변부화하는 시기에 그러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각기 다른 정치적 위치에 서 있었던 기록자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정치적 권력의 중심인 국가 및 중앙 관료, 주변인이라는 처지를 확인한 제주 출신 재경관인⁴⁸⁾은 제주의 주변부화라는 역사적 정황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정치적 주체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화 기록에 전제되는 이러한 발화 위치를 고려하면, 위에서 드러난 각 이본의 특징적 면모들이 어떤 의도에서 구현된 것인가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먼저 「지리지」를 보자. <삼성신화>의 신화적 신이성을 인정하는 한편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그 신화를 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신화 자체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지리지」는 건국 화소를 지움으로써, 신화가 지니는 건국 신화적 요소를 부인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제주의

47) 세종이 고득중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것도 결국은 그가 ‘해외지인’이었기 때문이다. “得宗, 海外之人, 故其待之也以寬, 爾等何固執如是哉?”(『세종실록』 25년 6월 10일) 구별의 낙인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그에 대한 비난과 같은 맥락에 있다.

48) 실록에 따르면 고득중의 죽음은 문종 1년(1451)에서 1460(세조6)년 사이로 추측된다. 「서세문」은 1450년에 기록되었으므로 고득중이 중앙의 환로에서 자신의 주변인적 위치를 확인하고 난 이후의 기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토착적 지배 일문이었던 고씨 일족의 신화와의 관련성도 가능한 한 약화시키고 있다. 양을나의 서차를 고을나 앞에 위치시킨다거나, 신라에 입조한 3형제를 고씨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을나들의 15 대손이라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다른 이본들과 구분되는 지점임을 이미 앞에서 보았는데, 이는 당시 제주의 대표적인 토착 지배 세력이었던 고씨 일문의 권위가 신화에 의해 보장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크다.

「지리지」는 제주 土姓 항목에 ‘고’와 ‘양’, ‘부’를 제시하고, 고씨와 양씨, 부씨가 성주와 왕자 도상의 위치를 차지했다고 하여 제주의 토착적 지배 세력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로 보아 조선 조정은 당시 제주의 권력 양상과 土姓들의 영향력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 제주를 경영하는 데 제주 토호들의 힘을 빈 것은 이러한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제주 토성들은 조정의 입장에서 볼 때 언젠가는 부정되어야 할 존재였다. 조선 조정과 제주 토성들의 밀월은 제주에 대한 조선 조정의 직접 지배가 확립되기 이전까지를 시효로 하는 과도기적 관계였던 것이다. 더구나 그들이 특정 ‘국가’를 내세우고 그 국가의 ‘건국주’의 후손임을 내세운다면, ‘조선’이라는 국가 체제 안에 제주를 포섭해야 할 조정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리지」의 <삼성신화>는 제주의 전통적 신화는 받아들여 그 신화가 특정 성씨의 시조 신화 혹은 특정 국가의 건국 신화로 연결될 가능성은 차단함으로써, 신화를 통해 드러나고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집단의 권위나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의도 아래 문자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리지」의 <삼성신화>는 제주에 인물과 산업을 번성하게 된 일종의 문화 기원신화로서의 의미만을 지니게 된다.

요컨대, 「지리지」의 <삼성신화>에서는 지방 신화를 수용하되 그 신화를 중심으로 결집했던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예컨대 국가로서의 제주나 지배 계급으로서의 고씨 일족⁴⁹⁾-를 배제하려는 서술 의도가 읽힌다. 거듭

말하자면, 전통적 신화를 인정하면서도 그 신화의 주인공이 현재의 특정 집단과 연결됨을 부인하거나 감춤으로써 현재 그 신화가 유통되는 집단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정 세력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것을 배제해야만 제주에 대한 조선의 실질적 지배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임을 생각한다. 「지리지」의 <삼성신화>는 제주라는 지방을 지배 권역 안으로 포섭해야 하는 조선이라는 국가가 그 지방의 신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한편으로 그와 관련되어 온 전통적 세력은 배제하는 양상을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⁵⁰⁾

「성주고씨전」과 「서세문」의 <삼성신화>는 각각 조선초 중앙 정부의 관료였던 정이오와 고득중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확인했듯, 관료 고득중에게는 ‘海外之人’, ‘海島微生’이라는 구별의 표지가 붙어 있었다. 이러한 표지를 부여하는 입장에 있는 관료와, 그러한 표지를 부여 받는 관료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는데, 이 두 글에 표현된 <삼성신화>가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은 앞에서 이미 보았다.

「성주고씨전」은 고득중이 ‘우리 집안이 모흥혈에서 기초를 세운 이후로 신라로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星主의 작위를 세습하였고, 국가를 섬기어 충성심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나, ‘기록으로 남기지 아니하면 그것이 모두 없어져서 장래의 후손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을까 두려워 정이오에게 글을 써서 남겨줄 것을 부탁한 끝에 기록된 것이다. 중앙 관료 사회에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고득중이 당대의 대표적 문장가 중 한 명이었던 정

49) 제주의 지배 집단이 고씨 일족으로 굳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진영일, 앞의 글 참조

50) 이러한 양상은 「지리지」 제주목 條의 다음 기록에도 일관된다. 한라산 主神의 막내동생이 매로 변하여 호종단의 배를 침몰시키니 나라에서 광양왕으로 봉하고 매년 향과 폐백을 내려 제사를 지낸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호종단은 제주의 혈맥을 끊은 인물로 종종 설화화되는 인물이고 보면, 이 기록은 그러한 외부의 횡포를 징벌한 제주의 수호신이 국가로부터 식읍을 받는 일개 封臣으로 격하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제주의 전통적 신화 세계의 영험은 국가의 권위에 의해 추인되고, 따라서 국가의 영역 안으로 포섭되는 것이다.

이오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은 그러한 글을 통해 당시의 관료 사회에서 자신의 가문의 위치를 확인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

「성주고씨전」은 고득종의 시조가 탄생하는 장면을 보통 사람과는 다른 신인의 출생으로 서술함으로써, 그의 가계가 보통의 가계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성주고씨전」의 <삼성신화>에는 신화적 신이성이라든가 신화적 사건을 사실화하는 인식, 건국 신화로의 요소 등이 모두 제거되어 있다. 고씨 가문이 제주에서 차지하였던 특권적 지위나 독립적 政體로서의 제주의 위치 등은 기록과 함께 모두 사라졌다. 정이오라는 중앙관료에게서 확인받은 고씨 일문의 위치란 한낱 지방의 일개 호족에 불과했던 것이고, 더구나 제주 토호에 대한 정이오의 시각은 고득종에게 부여되었던 ‘海外之人’, ‘海島微生’이라는 표지가 지니는 함의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고 보면,⁵¹⁾ 「성주고씨전」이 지니는 신화적 빈약함은 애초에 의도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득종이 말년에 스스로 「서세문」을 쓴 것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왜소해져 버린 「성주고씨전」에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관직 생활에서의 영욕을 통해 주변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고득종은, 스스로 자신과 그 일문의 가치를 재확립한다. 그들의 시조가 건국주었던 ‘毛牟’라는 국가를 과거의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그 신성성을 극대화하며 군-신-민의 유교적 정치 질서 속에서 君의 위치를 차지했던 고씨왕이 제주와 정의,

51) 「성주고씨전」을 통해 정이오가 피력한 고씨 일문에 대한 찬사는 다분히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이오는 <送朴德恭之序>라는 글에서 제주는 ‘그 풍속이 미개하고 거리가 먼 데다가 성주·왕자 토호의 강한 자가 다투어 평민을 차지하고 사역을 시켜서 그것을 인록(人祿)이라 하며 백성을 학대하여 욕심을 채우니 다스리기 어렵기로 소문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주 토성 세력에 대한 정이오의 본심은 여기에 드러나 있다고 본다. 인용은 이원진, 김찬흡 외 역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27면 같은 내용이 『신증동국여지승람』 제8권 제주목 風俗條에도 실려 전한다.

대정의 제주섬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 제주는 풍속이 미개한 벽지(僻地)에 불과하며 토호들은 그곳을 사사로이 지배하며 사욕을 채우는 이들이라는 시각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다.

고려와 元이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자, 고씨 일족은 새로이 등장한 조선이라는 새로운 중심부에 편입됨으로써 제주에 대한 전통적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조선의 국가 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기존의 토착적 권위와 영향력을 상실했고, 중앙의 일부로 편입하는 데에도 실패하면서 모든 권력의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다. 조선에 대한 제주의 주변부화에는 토착적 지배 세력의 권력으로부터의 소외 혹은 주변부화가 동반되었던 것이다. 「서세문」의 <삼성신화>는 이러한 좌절을 경험한 고득종이 고씨 가문 내부의 독자들을 향해 왜소해져버린 그들 일문의 정체성을 신화적 태초의 시간으로 거슬러올라가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본 중에서 공식적 담론의 장에서 추인된 <삼성신화>는 「지리지」의 그것이었다. 「서세문」은 주변부의 진술로서 현실적 권력의 장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내부의 목소리에 그치고 만다.⁵²⁾ 조선시대에 기록된 <삼성신화>는 대부분 「지리지」의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 담론의 장에서는 「지리지」의 <삼성신화>와 그 안에 고착된 신화적 의미가 ‘삼성신화’로서 유통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심부의 시각으로 재편된 주변부의 신화는 주변부에서도 그대로 수용되기만 하지는 않았다. 「서세문」에서 보듯, 주변부에서는 또 그들 나름대로 신화를 재편하고 전승해왔던 것이다.

52) 그러나 이것이 고씨 일문의 집단적 자각이나 정치적 대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씨 일문의 족보류에 정이오의 「성주고씨전」이 서문 격으로 실려 있는 것을 보면, 당대의 저명한 판료 문장가가 남긴 글이라는 권위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는 조선 초기에 문자화된 <삼성신화> 이본을 대상으로 표현상의 편차를 지적하고, 기록 당시의 역사적 정황과 그 정황에서의 기록자의 위치를 확인하여 그러한 편차가 내포하는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조선초, <삼성신화>는 제주가 조선의 일부로 ‘주변부화’되는 과정에서 주변부화의 주체인 국가 및 중앙 관료, 중심에의 편입을 의도했으나 결국은 주변부로 밀려난 제주 토호의 입장에서 각각 문자화되었다. 요약하자면, 「지리지」의 <삼성신화>는 제주의 전통적 신화 세계를 인정하는 한편 그 세계의 전통적 지배 권력을 부정하고 그것을 새로이 등장한 조선이라는 중심부 국가의 통제 아래 관할하려는 의도 아래 기록된 것이다. 「성주 고씨전」의 <삼성신화>에서는 중앙 관료로 진출한 고씨 일문을 특정 국가의 왕족이 아닌 일개 지방 호족으로 위치지으려는 의도를, 「서세문」의 <삼성신화>에서는 중심으로의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자각한 ‘주변인’이 그러한 시각에 대응하여 자신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현전하는 <삼성신화> 이본들의 모태가 되는 어떤 신화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그것은 전승 집단이 특정 국가의 주변부로 전이하는 국면에서 기록 주체의 정치적 위치와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재편·전개되어 갔던 것이다. 조선초에 문자화된 <삼성신화> 이본들에 대한 고찰은, ‘주변부화’라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주변부의 전래 신화가 어떤 형태로 재진술되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적절한 실례가 된다.

본고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삼성신화>는 18세기 초 제주의 토착 신앙을 일소하고 유교적 윤리 체계를 제주의 일상 세계로 이식시키려던 병와 이형상 목사에 의해 다시 소환된다. 20세기 초 제주의 대표적 지식인이었던 心齋 金錫翼(1885~1956)의 『耽羅紀年』에도 이전의 이본들과는 또 다른 <삼성신화>가 기록되어 있다. 본고는 조선초에 기록된 이본

들에 한정하여 각 이본들의 의미 지향을 살피는 데 그쳤으나, 전대 문헌의 답습에 머무르지 않았던 후대의 이본들은 또 앞선 텍스트들과는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가를 지적하고 그것의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본고에서는 주변부 신화의 재편 과정을 재편 주체의 정치적 의도와 관련하여 파악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이 과정에 작용했을 수 있는 중심부 신화의 영향 여부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음을 밝혀 둔다.

전승의 토대가 되는 집단이 정치와 담론의 장에서 주변부로 밀려났을 때 그 주변부의 신화가 주변부와 중심부의 시각에서 각각 달리 재편되는 양상을 고찰하면, 권력의 신화 혹은 중심의 신화로 상승하지 못한 신화가 존재해 온 양상과 그 원리를 해명하는 데에까지 이를 수 있다. <삼성신화> 이본들의 신화적 의미를 각각 고찰하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음을 밝힌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신화의 전승 원리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자료

- 『高麗史』
- 『高氏族譜』(서울대 규장각)
- 『東文選』(민족문화추진회, 1969)
- 『成宗實錄』
- 『世宗實錄』
- 『瀛洲誌』(한국학중앙연구원)
- 『長興高氏族譜』(한국학중앙연구원)
- 『耽羅志』(역주, 푸른역사, 2002)

『太宗實錄』

2. 논저

- 강정식, 「三姓神話의 傳承樣相」, 『제주문화연구』, 제주문화 1993, 155~185 면
-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2, 195~223 면
- 김진영, 「조선초기 중앙정부의 '제주도' 정책」,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1, 6~27 면
- 문무병,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백록어문』 7,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90, 7~35 면
- 박원실, 「탐라국의 형성·발전과정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3, 4~16면.
-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301~338 면
- 이영권, 『새로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66~100 면
-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1~30 면
- 서대석,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7, 49 면
- 서해숙, 『한국 성씨의 기원과 신화』, 민속원, 2005, 5~8면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33~35 면
- 장주근, 「삼성신화 해석의 한 시도」, 『국어국문학』 22, 국어국문학회 1960, 115~120면
- 전경수, 「을나신화의 문화전통과 탈전통」, 『탐라문화』 1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115~127면
- 조동일, 「탐라국 건국서사시를 찾아서」, 『제주도연구』 19, 제주학회, 2001, 71~108 면
-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324~328면.
- 진영일, 「고려전기 탐라국 연구」, 『탐라문화』 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163~184 면
- 허남춘, 「삼성신화의 신화학적 고찰」, 『탐라문화』 1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139~149 면

허춘, 「삼성신화 연구」, 『탐라문화』 1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179~201 면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45~93 면

홍기문, 『조선신화연구-조선사료고증』, 지양사, 1989(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118~120 면

鳥月憲三郎, 『古代朝鮮と倭族』, 東京: 中公新書, 1992, 66~112 면

논문투고일: 2006.9.30. 심사완료일: 2006.11.29. 게재확정일: 2006.11.30.

K C I

Abstract

Rewriting Myth and its Meaning: A Study on the Three Versions of the *Samseong Shinbwa*(The Myth of the Three surnames) of *Jeju* island

Jeong, Jin-hee

In early time of the *Joseon Dynasty*, a myth of *Jeju* island had been lettered by various versions. The *samseong shinbwa*(三姓神話 The myth of the three surnames.) has three version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among each versions and seeks to understand the reasons why was the myth lettered by various versions in the same period.

The three extant versions of this myth which known its writer and its lettered time, are the rendition recorded in the *Koryeosa*(高麗史 The History of *Koryeo*), the official history of the *Koryeo Dynasty* compiled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 *Seosemun*(序世文), the rendition in the genealogy of the *Ko* family of *Jeju*, and the *SeongjuKossijeon*(星主高氏傳) written by *Jeong I-o*, a government official of *Joseon*.

They show differences each other in some aspects. For example, the foundation motif is only in the *Seosemun*(序世文). In The *SeongjuKossijeon*(星主高氏傳), the divinity of this myth is very weakend. The *Seosemun*(序世文) and the rendition in the *Koryeosa*(高麗史), see the myth as historical facts. As a result, the three versions of this myth have the different mythological meanings each other.

This myth of *Seosemun*(序世文) is the foundation myth of *Tamma*(耽羅 the kingdom of *Jeju* island) and points up the founder who is the ancestor of *Ko* family. The rendition in the *Koryeosa*(高麗史) tells the divine origin of *Jeju*, but it doesn't admit the kingdom of *Jeju* and the *Ko* family as its ruler. It see the myth just as a sacred tale in *Jeju*. The *SeongjuKossijeon*(星主高氏傳) see the myth as the

origin story of the *Ko* family of *Jeju* which is the porvinces of *Joseon Dynasty*.

In early time of the *Joseon Dynasty*, the *Jeju* lost its political status as a independent kingdom and was located on the political margin of the *Joseon dynasty* which had appeared as the political center. The rewritings of the *samseong shinhwa* (三姓神話) of *Jeju*, show clearly that political intentions are expesed in the form of myth discourses.

Key words : *samseong shinhwa*(三姓神話), rewriting myth, discourse, political intention, foundation myth

K C I

к с і